

박용성 대한 상공 회의소 회장과 박용만 그룹 부회장의 비자금 조성 혐의

박용성 회장은 과거 20년간 “태맥”(대표 이사 전 동양 맥주 사장 이 영길)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룹의 각 이권 사업장에 생맥주 집을 차리고 이 위장 계열사를 통하여 1년에 5억-10억씩 100억에서 200억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하여 개인적으로 착복한 혐의가 있으며 또한 동 회사를 이 영길 명의로 신탁하여 20년간 운영한 사실이 있음.

최근 이 영길과 공동 대표로 있는 사장 명의로 250억에 동 회사를 매입하여 이 영길 명의의 비자금 통장을 박용성 회장의 친 아들인 박 진원 두산 인프라코어 상무가 관리함. 박 회장과 박 상무는 상기의 통장의 250억을 개인 돈처럼 사용하고 있으며 용처가 극히 불분명함. 상기의 사실로 볼 때 (주) 태맥에서만 350억-450억 가까운 비자금이 조성되었음.

박용성 회장은 같은 방법으로 두산 그룹의 경비 용역과 건물 관리 업체인 동현 엔지니어링을 자신의 심복이자 부하인 이 종범 사장에게 맡겨 연 10억 가까운 자금을 만들어 20년간 200억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유용한 혐의를 갖고 있음. 여기서 만들어진 비자금 역시 철저히 개인의 사금고화하여 자신의 조직 유지에 사용하고 있음.

박용성 회장은 또한 본인의 과실로 부도가 나서 그룹에 편입되게 된 일경 개발의 분식 회계 중 일부를 처리할 곳이 없게 되자 춘천 골프장을 운영하는 (주)두산 기업에 가공의 영업권을 창출하여 175억 이상의 분식을 두산 기업으로 떠넘긴 혐의도 있음. 결국 두산 기업도 부도 위기를 맞자 두산 산업 개발에 강제 합병을 시킴.

박용만 두산 그룹 부회장은 자신의 동복 동생인 박용욱 (주)이생 그룹 회장을 통하여 위장 계열사 형태로 운영한 (주)넵스라는 회사를 통해 두산 산업 개발의 주방 가구 몰량 및 목공사, 마루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5년간 독식하여 1000억대의 수의 계약 및 200억대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역시 개인의 사금고로 이용하며 조직 관리에 사용하고 있음.

박용만 두산 그룹 부회장과 박 진원 두산 인프라코어 상무(박 용성 회장 아들)은 또한 뉴트라 팍이라는 회사를 미국 위스콘신에 설립해 계열사 자금 870억을 동원 미국으로 외화를 반출한 뒤 회사를 껍데기만 남겨 놓고 자금을 모두 빼들려 물경 800억대의 외화도 밀반출함. 참고로 이 회사는 초기 등기 이사로 박용만, 박 진원, 박 지원 두산 중공업 부사장이 등재 되어 자주 위스콘신에 가며 외화 밀반출을 지휘함.

박용만 부회장은 또한 두산 그룹 계열사인 엔 세이퍼(대표이사 김 용성 전략 기획 본부 사장, 박용만 부회장 친구 동생)에 자신의 친구들인 에스케이 그룹과 삼양사와 오너들의 돈을 투자 시킨 뒤 100억에 가까운 돈을 날리자 이를 두산 중공업 및 두산 그룹 계열사를 동원하여 껍데기 뿐인 회사를 고가에 계열사 80억 가까운 돈에 넘긴 배임 혐의도 있음. 결국 자

신의 돈과 친구들의 돈을 회사돈을 이용해 대신 갚아준 꼴이 되었습.

위의 삼인은 이상과 같이 드러난 것만 1700억 이상의 비자금을 지난 20년에 걸쳐 조직적으로 조성하고 그룹의 전략 기획본부를 사조직화 하여 움직여 왔으나 이를 현 박 용오 두산 그룹 회장이 알아내자 이 사실이 박용곤 명예 회장 및 다른 가족들 및 주주들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서둘러 인사 조치를 하게 된 것임.

수사 방향

넵스를 뒤져서 위장 계열사로서 거액의 공사 수주 및 비자금 조성을 캔다.

넵스 정도의 회사를 가져가려면 그룹 전략 기획실 승인 없이는 힘들고 전략 기획 본부장이며 그룹의 내부 경영을 총괄하고 있는 ym 부회장을 혐의점을 두어 계좌 조사를 한다.

Ym 부회장과 강신애 여사의 계좌를 조사하면 넵스(넵스 박용욱 회장은 ym 부회장과 같은 배에서 나온 동복 동생)와의 연결 고리 및 고정적으로 ym 부회장에게 상납하는 (주)두산의 협력 업체 및 두산 잡지 부문의 비자금 연결 고리 등이 나올 수도 있음.

Ym 부회장의 처남인 일동 여행사 강흥구 사장 쪽도 조사를 하면 그곳도 역시 두산 그룹 여행 물량을 독식했으므로 상납 연결 고리가 나올 것임.

Ym 부회장은 그룹의 전략 기획 본부를 사조직처럼 운영하면서 위의 형들을 기만하면서 자신의 세력을 구축해 나가고 서자 출신으로서 일정 세력을 구축하자 더욱 세력 확장에 열을 올리며 회장 자리까지 넘보기 시작하며 전횡을 일삼음.

따라서 ym 부회장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하려면 ym의 최 측근인 전략 기획 본부의 이재경 사장과 김용성 사장(엔 세이퍼, 네오플릭스 사장 겸임), 오리콤의 고영섭 사장, 네오플릭스의 최광주 사장, 그룹 홍보실 및 오리콤 소속의 김 진 부사장등, 그룹 관리 본부 이태희 부사장 등이 이러한 돈세탁 및 탈법, 불법의 원천이므로 함께 계좌 조사를 해서 상납 받은 약점 들을 잡아서 사임 시켜야 함.

개인 비리까지 들춰 내서 면죄부 받고 싶으면 ym것 더 가져 오라해야함.

위의 ym 주변 인물들의 약점이 뚜렷이 나오지 않을 경우는 다음 단계로 cw,gw를 조사할 시에 아래 인물들을 쳐야할 것으로 생각됨

엔 셰이퍼 배임 행위에는 ym 부회장, 김용성 사장, 최광주 사장, cw상무 등이 함께 관여함.

뉴트라 팩 배임 행위 및 외화 밀반출 혐의에는 ym 부회장, cw상무, gw부사장, 이재경 사장, 이태희 부사장, 중공업의 이성희 부사장(gw부사장파)이 연루됨

cw 계좌는 태맥을 조사할 시에 활용됨이 바람직.(ys회장,cw상무,이영길 사장 연루됨)